

고승 탄허(呑虛) 스님이 당시 선유위 조선일보 주필과의 대담에서 최고지도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스님에 의하면 인류 전체의 10%는 극선질(極善質)이고 다음 10%는 극악질(極惡質)이며, 80%의 평범한 사람들은 극선질과 극악질 중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최고의 영도자가 되면 거기에 수반된 10%의 극선질(極善質)이 대응되어 10%의 극악질(極惡質)이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이고, 반면에 못한 사람이 최고의 영도자가 될 때에는 거기에 수반된 10%의 극악질(極惡質)이 대응되는데 평범한 사람은 누가 집권해도 그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영도자로서 백성에게 명령하는 비와 영도자 자신이 좋아하는 바가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전체가 바뀌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레이스 돌입을 보면서 불자들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현재 대선판도는 우선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을 바꾸느냐 아니면 당명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지난 10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온 세력에게 계속 나라를 맡기느냐 하는 선택으로 집약될 것이다. 종교는 최선을 추구하지만 정치적 지혜는 현실 가능한 것을 추구한다. 현실에서 최선을 얻기가 어려우면 차선을 선택하며 차선도 없



불자 세상보기

정 천 구
영산대 교수

대통령 '깜' 을 보는 혜안

을 때는 차악(次惡) 즉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보자 중에서 아무도 고를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서 최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무이며 정치적 지혜일 것이다.

대선레이스가 진행되면서 후보 간에는 상대방의 흠집을 들추어내려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검증절차는 필요하겠지만 공당(公堂)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까지 되었다면 결정적인 흠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을 부정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결국은 자기

가 하는 일도 망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대선경쟁에서 네거티브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선은 상대방 후보의 흠집 내기 경쟁보다는 당연히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성장 을 중시하느냐 분배를 중시하느냐 △민공공조 나 국제협조나 △이념이나 실용이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성장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경제가 성장 되고 분배도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분배에 중점

을 두는 쪽에서는 골고루 나누어 주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다. 또한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지원과 유화정책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 것이다. 국제협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북핵문제 등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상응한 변화가 있을 때에만 대규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한쪽에서는 대선을 평화세력과 전쟁불사 세력과의 대결이라든가 민족이나 외세의 존이나 등의 이념적 용어로 선거판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다른 한쪽은 누가 더 국민을 잘 살게 할 것인지를 경쟁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그가 이끄는 10%의 세력과 정책도 함께 선택하는 셈이다. 화려한 말솜씨와 실현성 없는 심심성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미래세에 증상을 구제하실 미륵불은 불교의 이상적 통치자인 전륜성왕의 처세에 출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좋은 정치가 이루어진 곳에 부처님도 출현하실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후보가 이 땅에 보다 좋은 정치, 밝은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불자들은 신중히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일이다.

불자의 눈

'참회와 자정' 活句를 외쳐라

"여기 모인 대중(大衆)은 역순(逆順)을 자제하는 기쁨으로 곧은 것과 굽은 것을 모두 놓아버리면 서방(十方)의 종지(宗旨)가 한 곳으로 모일 것이요, 정(正)과 사(邪)의 서비(是非)가 원융(圓融)을 이룰 것이다."

조계종 종정 법친 스님이 10월 19일 '봉암사 결사 60주년 기념대법회'에서 내린 법어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날 기념법회는 1947년 시작된 봉암사의 결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이날 결사정신의 계승 결의는 최근 조계종에 불어 닥친 '위기의 바람'을 극복하기 위한 참회와 자정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조계종의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최근 MBC 'PD수첩'은 선거제도가 종단 부패의 중요한 원인이자 지적하며 공주 마곡사와 제주 관음사의 사태들을 집중 보도했다. 동국대에서 비롯한 신정아 사건의 이면에도 조계종의 계파갈등과 종립학교 관리에 대한 종단적 능력 부족이 매우 염려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말하자면 조계종은 지금, 정인과 제도가 모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위기가 반드시 패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라고 느끼는 순간이 희망의 길을 여는 순간이 되기도 한다. 그 전환점을 적기에 만들어 내는 지혜와 힘이 있다면 위기는 약이 될 수 있다. 조계종이 봉암사에서 그 약을 처방했다고 보여진다.

'참회와 자정결의'라는 두 축이 향후 조계종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정신에 입각한 청정교단으로 거듭나는 힘이 될 것을 믿는다. 봉암사에 모인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들어 실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참회했다.

또 중생들의 아픔을 치유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준 것도 참회했고 소인을 맡아 공경하고 무명함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이해와 아집으로 일을 그르쳤음도 깊이 참회했다.

이렇게 모두 107가지의 항목을 낱말이 인정하고 참회한 만큼, 이제 조계종은 새로운 종단 비전 설정과 무한한 노력의 경주를 과제로 남겨 둔 셈이다. 한 번의 법회를 통해 모든 것이 참회되진 않는다. 한 번의 참회를 통해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죄업은 그 죄업의 근원을 끊고 정인과 제도 시스템이 모두 새로워질 때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다. 하루속히 '역순을 자제하는 기쁨'으로 '종지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모든 종도들이 결속하여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계종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거시적 안목으로 조정해야 한다. 조계종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 참회와 자정이라는 의지와 결의는 한 편의 '쇼'에 지나지 않는다. 사구는 필요 없다. 활활발발한 활구만이 사람을 살리고 증생계의 복원이 될 수 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정을 결의하는 그 마음으로 종단을 낱말이 해부하고 병마가 깃든 곳에 확실한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 도러낼 것은 도러내고 약을 쓸 곳엔 약을 써야 한다. 이해관계와 탐욕에 집착하면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봉암사의 결사정신, 공주마곡사 등이 청정 교단의 위상을 세롭게 하고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을 때 조계종은 중생들의 따뜻한 귀의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종교자유' 칼럼

32. 군(軍) 종교편향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종교갈등으로 인한 군 내 인권침해·사기저하 없어야"

2004년 한 예비역 군종장교가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군대 내에서의 기도 강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로 그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공식회의를 주재하는 지휘관이나 공식행사에 초대된 군종참모인 성직자가 특정종교의 기도를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군대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아직도 지휘관의 종교가 문제가 되는 후진적 군대라는 아쉬움과 함께 군 내부의 문제를 일간지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만큼 어느새 언론의 자유가 많이 신장되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다. 다행히도 그 기사가 나간 후 군에서 바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전군에게 종교적 강제성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그 후 지휘관들의 종교편향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해진다.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공조직이라는 군의 생리상 사병이나 계급상 하급자가 상급 지휘관의 지시를 거역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종교 강요에 대해 불쾌하면서도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충분히 이



2003년 4월 종교편향적 대처에 항의해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김대복 장군.

해된다. 반대로 바로 그 특이한 조치 생리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개선 조치도 속도감 있게 처리된다는 점은 흠뻑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군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일 것이다.

지휘관으로서보다 특정종교 신자로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장교들이 가끔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오래된 얘기지만, 개고기 파티를 연 후 못 먹겠다는 불자 참모들에게 개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엄포(?)를 놓았던 장교도 있었다. 계급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존재하는 군대 사회에서 하급자들이 얼마나 난처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전도사라면 모를까 군 지휘관이나 공직자로서

는 적합한 인물일 수 없다.

군의 최종목표는 국토방위와 국민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항상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지휘관들도 당연히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병사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특히 종교인권은 인간의 소중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종교적 취향이나 종교차별적 언행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군조직의 사기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셈이며 그것은 곧 이적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군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종교문제 발생 시 엄중한 탄핵이 따라야 함은 물론, 사전 예방 차원에서 평소 모든 지휘관들이 종교인권에 대한 각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영삼 장로 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교 관련하여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던 적이 있다. 기독교 집회에 국가예비군을 강제로 동원해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육군 제17사단 전차부대(대장장 조병식 중령)에서 법당을 철거하고 불상을 파괴하여 화형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초파일에 특전사(부대장 박희만 대령, 예편 후 목사)에서 법당 주위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 국방부장관이 사과하는 등 크고 작은 종교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삼 정권에서 종교편향이 유독 심했던 것은 대통령의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선진군대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휘관 개개인의 리더십 못지않게 인사·시설 등의 군종정책도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종교중립적인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재 군종장교 숫자는 군목사 265명, 군신부 82명, 군법사 140명으로 기독교계가 불교계의 2.5배나 된다.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종교시설의 비율도 이와 유사하다. 종교간 형평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종교간 균형을 맞추는 데는 미흡하다. 군종장교의 해외파병에서도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는 늘 소외되어 왔다. 군법사는 초기 이라크전을 포함해 동티모르·소말리아 내전 등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때마다 제외되었다가 불교계의 항의로 이라크 파병 2차 때부터 겨우 포함될 수 있었다. 수년 전 국방부에서 군종장교들의 상담업무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펴낸 '선도활동'이란 책자도 기독교적 색채가 짙게 중기도록 편찬되어 있어 말장미 되었었는데, 책을 펴낸 편집위원 10명 전원이 군목사로 구성되어 불교와 천주교를 배제한 의혹마저 사기도 했다.

다종교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인권과 종교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때 국력은 극대화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현대불교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울릉 해도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봉식

남양 성인사

신도회장 도영국 외
신도일동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김도근 외
신도일동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소백산 무량사 人蔘

홍삼액기스

시중의 상품과는 차별화 했습니다.
순수 지방 국내산 6년근 인삼으로 정성을 다해서 가공했습니다.
드셔보시고 효능으로 평가 받고 싶습니다.

90ml×60포(식약청 검사품) 18만원
오가피 액기스 10만원
토종 마(20kg) 10만원

전화 주십시오.

※ 판매 수익금은 일체 미타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현대과학에서 본 인삼의 효능, 효과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와 병의 회복 촉진에 놀라운 효험을 발휘하는 효능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표적 효능으로는 신체조절기능의 향상성 유지작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용에 근거하여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작용, 항당뇨 작용, 혈압조절 작용, 항암작용, 동맥경화 및 고혈압의 예방, 두뇌기능 강화, 위장기능 강화, 면역기능 증강,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기도도량 무량사
문의전화 054-631-9974
※ 농협계좌 751019-51-095001 예금주: 무량사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 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 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뜻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자 격 : 식발염의한 스님(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07년 11월 12일 오후 3시 (주2회 월·목)
- ◆수강일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주2회)
- ◆장 소 : 진주시 이현동 이현사가 내 406호 (불음원)
- ◆과 목 : 기초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등
중급반 - 사시구제의식 및 사물 다루는 법
고급반 - 바라 및 승무 작법
- ◆강 사 : 원범스님 (011-867-8419)

영남범패 불음원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떨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